



*사상적 공백과 승상에 대하여.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 기도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 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 힘의 지배를 **㉣**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 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 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 인의(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통제² 統制

발음 [통:제]  
파생어 통제-되다 통제-적 통제-하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명사

1.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함.

법가??

7. 밑글에서 '육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 하도록 한다.
- ㄴ.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 온 것에 있다.
- ㄷ.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기) 역시 사상적 공백

이 없다.

사상적 공백

유교 사상적 공백

숭배-하다 崇拜하다

발음 [숭배하다]  

활용형 숭배하여(숭배해) [숭배하여(숭배해)] 숭배하니 [숭배하니]

원형 숭배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동사

1.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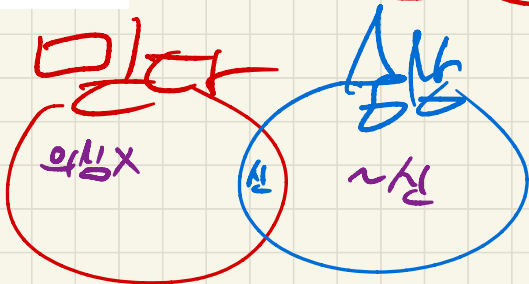
1. 우러러 공경하다.

나는 여러분의 높은 정신을 숭배하고 싶다.

우리 민족은 가족이나 혈족의 단결심이 강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철저하다.

2. 신이나 부처 따위의 종교적 대상을 우러러 신앙하다.

} 왜 다른 뜻일까??



송배하다 崇拜--

활용형 <어 불규칙①> 송배하여 송배해 송배하니

형태 [+崇拜-하_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타동사

1. **기본의미** (사람이 대상을) 훌륭히 여겨 우러러 공경하다.

내 동생은 그 가수를 좋아하다 못해 열렬히 송배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의 병폐는 돈을 송배하는 분위기가 퍼지는 것이라고 했다.

문형 명사 가 명사 를

2. (사람이 종교적 대상을) 우러러 받들다.

이집트 인들은 태양신을 송배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물이나 특정 동식물 등을 송배하기도 하였다.

문형 명사 가 명사 를

≠ **숭상하다** ←

→ **믿다** ←

송배-하다 崇拜하다

발음 [송배하다]

활용형 송배하여(송배해) [송배하여(송배해)] 송배하니 [송배하니]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1. 동사 [...을] 우러러 공경하다.

나는 여러분의 높은 정신을 송배하고 싶다.

우리 민족은 가족이나 혈족의 단결심이 강하고 조상을 송배하는 마음이 철저하다.

2. 동사 [...을] 신이나 부처 따위의 종교적 대상을 우러러 신앙하다.

믿다

발음 [믿따]

활용형 믿어 [미더] 믿으니 [미드니] 믿는 [민는]

어원 믿다 < 용가 >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동사

I. 「...을」

1.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긴다.

나는 동생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문형 -음을, ...으로, -고

2.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며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아이들.

3.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른다.

미신을 믿다.

불교를 믿다.

함께 하느님을 믿는 형제끼리라도, 이럴 때 심정의 미묘한 어긋남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출처 <<서기원, 조선백자 마리아상>>

II. 「...을 ...으로, ...을 -고」

1.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아무 의심 없이 다른 무엇이라고 여긴다.

교주를 신으로 믿다.

숭상하다¹ 崇尚--

+ 단어장

활용형 <어 불규칙 ①> 숭상하여 숭상해 숭상하니

형태 [+ 崇尚 -하_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타동사

1. (사람이 무엇을) 높이 우러르며 소중하게 여긴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숭상하였다.

데카르트는 이성을 최고의 원칙으로 숭상하였다.

단군 신화에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호랑이와 곰은 아마도 이들을 숭상하던 선주민 집단을 각기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예로부터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숭상해 왔다.

9. 출제의도) 한자어와 고유어 바꿔 쓰기

정답 ③

사상 통제를 ㉠ 기도했다.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 흡수하여
힘의 지배를 ㉢ 숭상하던
편찬자의 주관이 ㉣ 개입되었다는
세종 대까지도 논란이 ㉤ 계속되었지만

① ㉠: 꾀했다

풀이 ㉠의 '기도하다'는 '어떤 일을 이루도록 꾀하다.'라는 뜻이므로 '꾀했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② ㉡: 받아들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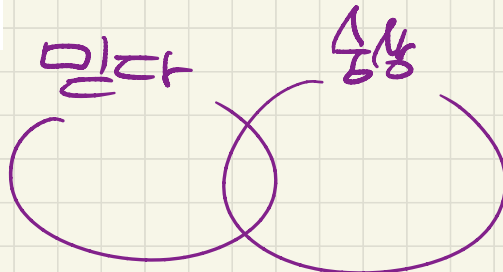
풀이 ㉡의 '흡수하다'는 '무엇이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하다.'라는 뜻이므로 '받아들여'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③ 정답 ㉢: 민던

풀이 ㉢의 '숭상하다'는 '높여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므로 '민던'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문맥적으로 힘의 지배에 대한 숭상은 힘의 지배 자체를 우러러 높이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힘의 지배가 어떠한지는 인식, 즉 그것의 실체나 내용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는 내포되어 있지 않다.

바탕

(의미제한X)



9.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정답: ③)

'민다'는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르다.'라는 뜻으로, '높여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의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꾀하다'는 '일을 이루려고 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뜻을 두거나 힘을 쓰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꿔 쓸 수 있다.

② '받아들이다'는 '다른 문화, 문물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꿔 쓸 수 있다.

④ '끼어들다'는 '다른 사람의 일 따위에 간섭하거나 참견하다.'라는 뜻으로,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꿔 쓸 수 있다.

⑤ '이어지다'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다.'라는 뜻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가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꿔 쓸 수 있다.

숭상

* 단어 문제는 풀고 싶지 않으나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꺾혔다.

→ 꺾히다는 가능합니다. 도모하다/ 기도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예 기도하다라는 단어의 설명에 꺾히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

② ㉡: 받아들여

→ 받아들여를 대체해서 읽으면 말이 됩니다.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통합 학문을 만든 것이니까요. 즉 문맥상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흡수하다와 받아들이는 게 흡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어떤 장면에서는 갈라집니다. 내가 널 받아들여줄게와, 널 흡수해줄게는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③ ㉢: 믿던

→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정답으로 나온 숭상하던이, 무리없이 믿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힘을 숭상하는 무리'나 '힘을 믿는 무리'나 뜻의 변형없이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거 못바꾼다면 한국인 맞나 싶네요. 사전적인 의미 차이도 있지요. '숭상하더라는 것은 높이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 다르다'라고 하신다면 ㉡ ㉢: 받아들여를 정답으로 처리한 논리가 공생해집니다. 게다가 **발문은 '문맥상 바꿔쓰기'지 유의어 찾기 문항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어떤 모순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차라리 예전 단어 문제들처럼, 전체의 모순이 단어가 등장하거나 했으면 좋았을텐데 숭상하다 - 믿다가 대체 불가능하게 '명백하다'고 해설한다면 이걸 조금 사후적인 해설이라고 봅니다.

④ ㉣: 끼어들었다는

→ 주관이 끼어들었다, 주관이 개입되었다. 대체 가능한 단어입니다. 다만 꺾히다만큼의 유의미성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 명확하게 답이지만, ㉡가 명확하게 답이 아닌 이유를 숭상의 '높임'의 의미 탓이라면, '끼어들'의 '물리성'이 '개입될'에는 없습니다. 끼어들들의 추상화된 버전이 개입됩니다. 유사성은 ㉡보단 낮지만, ㉢보단 높아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짜증내며 밀쳐내며 ㉣ 골랐습니다.

⑤ ㉣: 이어졌지만

→ 문제 없어 보입니다. 논란이 이어지다, 논란이 계속되다. 아예 유의어입니다.

한영사전 1건

믿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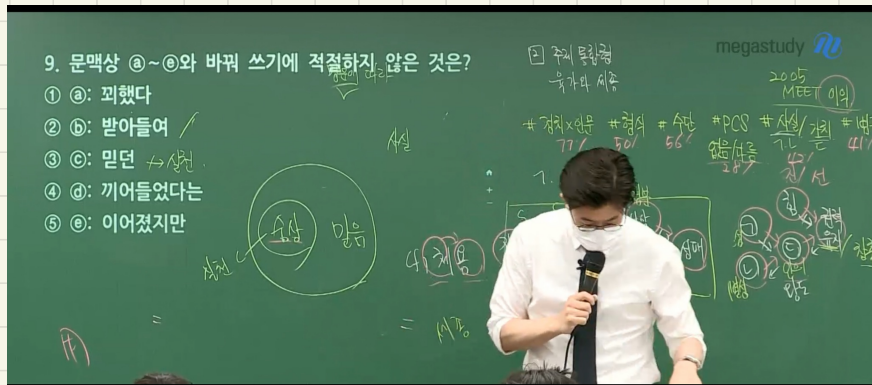
- 그 이론을 믿는 사람은 없어졌다 The doctrine has fallen into discredit.
- 그가 죽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I cannot persuade[convince] myself that he is dead[of his death].
- 그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It is quite beyond credibility.
-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했다 She made an incredulous gesture.
- 그는 전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다 He was staring at it in complete disbelief[with complete unbelief on his face].
- 그런 소릴 누가 믿어? / Tell that to the (horse) marines! / That will do for the marines! / Tell that to the Jews.
- 그런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없을 거야 The story won't go down with any one / No one can swallow the story.
- 그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I won't believe it of him / It's not believable that such a thing came upon him.
- 그의 말은 믿을 수 없다 I cannot believe him / I cannot give credit to his statement / I cannot take his word.
- 그의 이야기는 널리 믿어지고 있었다 Wide credence was given to his story.
- 나는 정직이 최선책임을 믿고 있다 It is my belief[My belief is]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 나는 플라톤의 의견과 같이 영혼 불멸을 믿는다 I hold with Plato that the soul is immortal / With Plato I believe in the immortality of the soul.
- 세상에 그는 그가 정직하다고 믿고 있다 People give him credit for being honest / Most people believe he is honest.
- 겉모양만 보고 믿을 수는 없다 Appearances are deceitful.
- 그는 단지 한 사람의 친구를 믿고 상경했다 He came to Seoul with a single acquaintance to look to for assistance.
- 그들은 다수의 힘을 믿고 행패를 부렸다 They behaved in an unruly way on the strength of their numbers.
- 그의 이론은 믿을 수가 없다 His theory won't wash.
- 나는 너 말고는 믿을 대가 없다 I have no one but you to look to for assistance.
- 나는 이제 그를 믿지 않는다 I [feel/have] no reliance on him any more.
- 내 기억은 믿을 수 없다 My memory often fails (me) / I have a treacherous memory.
- 내가 믿는 것은 밧줄 하나뿐이었다 A single rope was my only resort.
-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God is my only strength[resort] / My only hope for help is God.
- 너를 믿고 이 부탁을 하는 거야 I make this request with full confidence in you.
- 너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 I cannot rely[depend] upon your promise(s).
- 너를 믿어줄 않는다 I believe in you.
- 믿는 나중에도 굶어 편다 Never is a long day[word]. <속담>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Stabbed in the back[Betrayed] by one's trusted friend / Bite the hand that feeds you. <속담> / In trust is treason. <속담>
- 아시아인들은 미국을 믿을 수 있으나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있다 Asians are nervous about American reliability.
- 어머니는 나의 편지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My mother waited in reliance on my letter.
- 유사시에 믿을 수 있는 친구란 드물다 We have only few friends in need.

3 [신앙하다] believe ((in)); have belief[faith] ((in)); embrace, profess; [숭상하다] worship; adore; pay homage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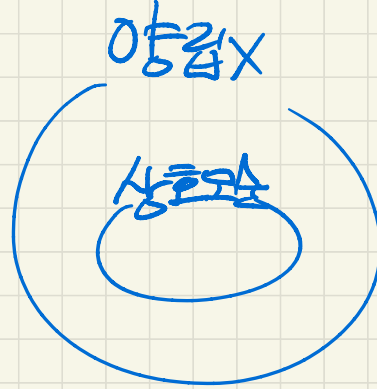
- 불교를 믿다 profess(believe in) Buddhism.
- 신을 믿는 사람 a devout person; a religious-minded man[woman].
- 아무 종교도 믿지 않다 profess no religion.
- 하나님을 믿다 believe in God.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꺾혔다
- ② ㉡: 받아들여
- ③ ㉢: 믿던
- ④ ㉣: 끼어들었다는
- ⑤ ㉣: 이어졌지만



'권위의 역설'은 통상 인간의 도덕적 삶에 필수적이라 여겨지는 두 요소인 '권위'와 '합리성'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들이라는 언명을 말한다. 합리적인 행위란 그 행위 자체의 가치에 대한 판단의 결과를 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인 반면, 권위에 따른 행위는 행위 자체의 가치와 무관하게 '단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이 전제하는 실천적 추론의 구조, 즉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사고의 구조가 상호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몇몇 학자들은 결국 합리성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권위 개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합리적 인간이라면 권위를 자기 행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권위를 꼭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권위가 옳은 행위를 명하는 것이라면 굳이 옳은 행위를 하기 위한 근거로서 명령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런 행위를 명하는 것이라면 명령에 따르는 행위를 합당하게 근거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① 필자가 주장

나는 동물을 말한다
 나는 언어사용을 한다.
인간만이 언어사용을 할 수 있다.

* 주장하고 싶은 바
 : 상호모순.

어휘 바꿔쓰기 문제에서
지문에 나온 단어의 외연보다 선지에 나온 단어의 외연이 커야 바꿔쓰기가 되잖아요?

이번 6평 해설을 보고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 1) 지문에서 '결성하다(조직이나 단체가 이름)'를 '이루다'로 바꿔쓰기 O (고유어는 한자어보다 외연이 크다)
- 2) 이번 6평에서 '송상하다(믿고 실천함)'를 '믿다'로 바꿔쓰기 O (마찬가지로 고유어는 한자어보다 외연이 크다)

근데 2)가 X인 이유는 뭔가요? 다시 말해 1)과 2)의 차이는 뭔가요?

어휘 바꿔쓰기는 단어 간 대소관계로 푸는거 아니었나요?

2) 믿음은 실천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1) 도 같은 논리로 이름은 조직이나 단체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틀린 것이 되지 않나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㉔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어휘 바꿔쓰기 - 두 사례의 충돌

국어연구원 | 2022-06-14

안녕하세요, 국어연구원입니다.

과는 같습니다. 의미범주상 범주가 더 크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믿다'는 어떤 대상을 신뢰하다 는 것으로, 절대적 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만, '송상하다'는 어떤 대상을 높여 소중히 여기다는 뜻으로, 믿다보다 좁은 의미범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자어나 고유어나'의 차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범주상 범주의 차이로 보는 것입니다.

9. 문맥상 ㉔~㉔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 소지(所持)하여야
- ② ㉔: 포착(捕捉)한다
- ③ ㉔: 귀결(歸結)되어도
- ④ ㉔: 간주(看做)하면
- ⑤ ㉔: 결성(結成)되지

이루어라
결성

다른학생의 어휘 질문보다가

답변에 지문의 범주보다 선지의 범주가 크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헷갈려서요

이말은 선지의 범주가 지문의범주보다 작아야한다는건데 그러면 뜻이 더 구체화돼서 오히려 반대여야하는거 아닌가요?

기출에서 정말 자주나왔던 지문의 '지니다'를 선지의 '소지하다'로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소지하다'가 범주가 더 작기 때문이잖아요 (유체/무체) 브크 101쪽 행정입법 지문에서도 지문의 '예측'보다 선지의 '헤아리다'가 범주가 더 커서 바꿀 수 있구요

즉, 바꿔쓰기가 가능하려면 지문(선지 여야하는데

6평 9번문제 1번선지랑 3번선지 고민하다가 정답선지를 고르긴 골랐는데, 민다가 숭상(높이 소중히 여김)보다 더 크거나니예요? 아니면 그냥 뜻이 다른건가요? 저는 실전에서 숭상하니까 숭배가 떠올랐고 숭배도 약간 종교적인 우상숭배 이런거잖아요 종교는 신을 믿는거고요 그래서 민다가 숭상보다 범주가 큰거같은데 또 맥락상 넣 어보면 민다랑 숭상이랑 대소관계가 아니라 의미자체가 다른거같기도하고 헷갈렸어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㉔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㉕ 만들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지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㉖ 지닌 인간은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어휘 국어연구원 | 2022-06-10

만생하세요, 국어연구원입니다.

아아 쉽게 말해서! 가능성 측면이에요. :)

양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문에서 어떤 단어의 의미범주가 'A는 B이다' 있을 때, 선지에서 'A는 B일 수 있다'라고 언급된다면,

의미범주 상 선지에서 'A가 B가 아닌 가능성'이 제시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지니다

발음

활용형 지니어(지녀) [지니어(지녀),지니어] 지니니 [지니니]

어원 <디니다<석상>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동사

1. 「...을 ...에」

1.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

보석을 몸에 지니다.

2. 기억하여 잊지 않고 새겨 두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지니다.

소지.

소지하다¹ 所持--

활용형 <어 불규칙> 소지하여 소지해 소지하니

형태 [+所持-하_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타동사

1. (사람이 어떤 물건) 몸에 지니다.

어디를 가든지 수면 등대등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32. 문맥상 ㉔~㉖와 바꿔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 : 진작(振作)할
- ② ㉔ : 고안(考案)했다
- ③ ㉔ : 소지(所持)한
- ④ ㉔ : 설정(設定)했다
- ⑤ ㉔ : 시사(示唆)되어

지니다
* 소지하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㉑**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30. 문맥상 ㉑~㉔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 나타내기
- ② ㉒ : 드러내어
- ③ ㉓ : **헤아릴**
- ④ ㉔ : 마주하기
- ⑤ ㉕ : 달라진다

